

## “치과계 국제 위상 강화” 한국 FDI 수석대표 1명 늘어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문준식)는 최근 세계치과의 사연맹(회장 윤희렬·이하 FDI) 본부에서 우리나라의 대표단을 수석대표 4명, 교체대표 2명으로 각각 확정,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수석대표 1명이 늘어난 숫자로 최근 우리나라의 치과 의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선 사실이 전격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위원회 관계자도 “회원 증가와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FDI 본부에 송부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간 FDI가 실제 활동하는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FDI 본부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이 같은 우리 치협이 주장이 그대로 포함돼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가 전체 11만4천525명인 미국은 수석대표 10명, 교체대표 2명, 일본(5만3천481명)은 수석대표 7명, 교체대표 2명으로 각각 수석대표가 5명과 2명 늘어난 수

치로 확정됐다.

이 같은 변동은 지난 2003년부터 윤희렬 FDI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FDI 정관개정 특별위원회(FDI GOVERNANCE TASK TEAM)가 구성된 가운데 정관개정을 위한 수차례 논의와 검토 끝에 마련된 최종안이 지난 인도 뉴델리총회에서 각국 대표자들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안은 일정 회원 수가 넘더라도 대표자 수를 최대 5명으로 제한한 이전 안을 대신해 각국 회원 수에 따라 대표자 수를 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회원 수가 많은 미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은 기존보다 대표자 수가 늘게 돼 FDI 회장을 비롯한 임원, 각종 위원 등의 선거와 각종 사업 등의 결정에서 상대적인 권리를 더 확보하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자 수가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었던 교체대표는 1명 또는 2명으로 제한했다.

##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 전국치대 학장협의회도 나선다 T/F팀과 공조체제 구축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T/F팀이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에 적극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요청,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해 지난 1월 공식 발족한 T/F(팀장 최재갑)는 3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에 공조체제 구축을 적극 요청키로 결정했다.

최재갑 팀장 등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치과병원의 독립은 교육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나 교육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국치과대학 학장들이 T/F팀과 힘을 결집해 적극 나서 줘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T/F팀은 전국치과대학장협의회에 관련 협조를 구한 가운데 공동명의로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을 위한 건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요청키로 했다.

T/F팀은 또 국립대치과병원 독립과 관련한 그동안의 경과

와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정책 자료집을 만들어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키로 했으며, 관련 공청회 개최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T/F팀은 이날 정책일정으로 인해 해외 출장중인 최재성 열린우리당 의원을 대신해 안순모 정책비서관을 팀 회의에 배석시킨 가운데 국립대병원 설립 현황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에 대한 배경 설명 후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의 당위성에 대해 피력, 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안순모 정책비서관은 “국립대치과병원 독립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납득이 가지만 자칫하면 의료계간 밥 그릇 싸움으로 비취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비서관은 또 “아직까지 치과계 외부에서는 그다지 관심을 모으지 못하는 사안이다”며 “관련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현 사안을 공론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비인기과 전공의 수당 지급해야” 치협, 복지부에 요구안 제출

“구강악안면외과 등 비인기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원해 달라.”

치협은 올해 2005년도 치과 의사 레지던트 선발과정에서 구강악안면외과 등 비인기과목의 지원자가 대거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졌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3월 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치협은 “일부 특정 비인기과 전문과목인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예방치과 등에 지원자가 미달해 전문과목간 전문의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전공의들이 기피하는 비인기과목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비인기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또 “바람직한 국민건강권 확보와 의료편의를 위해 수련치과병원의 전공의 수급에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

역적인 의료자원의 균등한 분배를 통한 응급의료 환자 진료 및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수련보조수당 지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의과의 경우에는 10개 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 한해동안 10개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으로 총 34억9천8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10개 전문과목은 흉부외과,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이다. 응급의학과와 같은 경우 모든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가 혜택을 받지만 그 외 9개 과목의 경우에는 국립 및 특수법인에 수련중인 전공의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병협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민간병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 개선 주력 자재위원회, 2005년 사업계획 등 논의

치협 자재위원회(위원장 우중윤)가 올해 까다롭게 강화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엑스선 발생장치 등 관련법규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치과기자재 유통구조 개선과 치과기자재 품질관리에도 적극 나서 불량기자재 업체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사업 방침을 정했다.

자재위원회는 3월 3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2005년도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선진 외국의 자료를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규로 개정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특히 감염성폐기물(손상성폐기물) 전용용기 사용에 따른 제반 사항과 이동형 엑스선 발생장치에 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한치과기자재학회에 용역을 위 연구한 치과용 골내 임프란트, 치간 칫솔, 치실 등에 대한 규격안을 협회규격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GSK(글락소 스미스클라인) 틀니세정제 ‘폴리덴트’와 질레트코리아의 칫솔을 치협 추천품으로 연장 및 새로 승인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우중윤 자재이사는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등의 문제점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동성 엑스선 발생장치 등의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바로잡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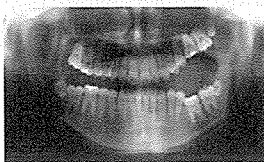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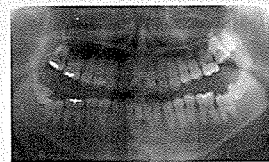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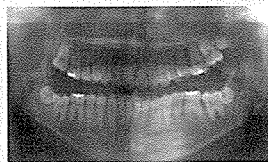


Fig 5.

통권 제43호 3월호 P214~P215의 Fig. 3과 Fig. 5를 위와같이 바로잡습니다